

자주적 여학생회 우리가 일궈갑니다!!

# 여학단위 간부 일꾼 '배움 학교' 자료집

\* 순 서

1. 시작하는 시
2. 역사로 본 여성문제
3. 여학생 간부로서 우리는? - 간부론
4. 이번 방학 이래서 중요합니다.
5. 민담속에 나타난 여성상

제 11대 총여학생회 (건)

작은 꽃에도 이름 있으나

장미 철쭉 민들레 제비꽃 털여귀꽃  
할미꽃 도라지꽃 봉숭아 노루오줌꽃  
우리는 그저 꽃이다

피어남보다도  
걱임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  
바람결 같은 욕정 앞에서  
쉽게 잊혀지기 위해  
이름표를 달지 않는 꽃  
말없는 꽃  
행동하지 않는 꽃  
죽은 꽃

천번 죽어도 꽃이라는데  
꽃이고 싶지 않은 이들이  
어스름속 지워진 이름을 찾고 있다

## 역사로 본 여성문제

오랫동안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의 지위변화는 여성의 예속이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이러한 여성 억압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본성과 여성문제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으며, 나아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실천적 과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여성 억압의 근원을 찾아보자.

### 1) 원시사회의 여성

원시시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화석, 현존하는 원시사회 신화나 전설등의 연구, 분석을 통해 원시시대의 삶을 추적하고자 하고, 그 결과로 부족하지만 몇가지 공통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지식은 무엇보다도 우선 현저하게 평등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시 공동체 사회는 단순협업적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 잉여생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 사적소유가 없는 만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할 가능성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지위는 어떠한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었을까? 그것은 자연조건, 노동방식, 가족의 형태, 전쟁의 빈도 등에 달려있다.

수렵, 나무열매의 채취 및 원시적 농업이 주요한 생업이었고 사냥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원시사회에서는 여성이 거주지 주변에서 채집노동을 담보하며 경작과 수확 등의 중요한 노동을 수행하였고, 남성은 그것을 보조하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노동을 담당했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여성의 생물학적 조건 - 임신, 출산, 수유의 모성 기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역할 분업은 자연스러웠고 남녀의 일은 모두 대등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어떠한 차별이 아니었다. 원시농경을 여성들이 주도했다는 것은 신화나 제사의식, 현존 원시사회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내에서는 여성의 억압과 착취를 가져오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때 여성의 지위변화는 새로운 생산력과 분업의 발달에 따라 일어났다. 원시시대 말기에 이루어졌던 원시적인 생산활동 대신 본격적인 수렵과 농경이 중요한 산업이 된다. 기존 수렵에 종사하던 남성노동이 전반적으로, 정착화된 농경과 목축에 투입되어 목축의 담당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 노동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을 산출하고도 남을 정도의 생산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

렸다.

이 때 새롭게 생긴 잉여생산물은 사유재산화 되는데 가족 내에서 중요한 노동을 담당할 남성들이 사유재산의 주인이 되고 이러한 상황변화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 역할을 크게 변화시켰다.

최초의 주요한 교환물이었던 가족이 사유화되자 대부분의 생산도구도 사유화되어 갔으며 결국에는 토지까지 사유화되는 급속도의 사유재산화가 부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사적소유를 통해 경제권을 장악한 남성이 가족내의 권력까지 세습하려 했고 이는 부계의 확실한 혈통을 보장할 수 있는 일부일처제 가족형태를 창출하게 되었다.

참 고 : 초기 원시사회에서는 성교에서 어떤 금기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근친혼 집단혼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분협력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낳았다.

일부일처제는 남성의 생산물을 상속할 자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정조가 강요되었고 그 이면에 성을 상품화하는 직업적 매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이중적인 남녀관계를 만들어냈다.

또한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 가족의 발달은 가사노동을 사적 영역으로써 한정짓게 하고 사회적 성격을 상실케 하여 바야흐로 여성이 사회적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제되기 시작했다.

## 2) 고대 노예제 사회

원시공산제 사회의 해체과정에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뉘는 계급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고대 노예제 사회로 접어들면서 토지 소유가 진정한 의미의 사적 토지소유를 형성하게 되고 그 토지소유는 유력자에게 집중되어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계급과 토지를 상실한 노예 두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급분화 차별이 더욱 심화되어 계급계층의 사회적 의존, 예속관계가 뚜렷히 나타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지극히 노골적인 양태로 진행되게 되었다. 노예제 하의 가족은 지배계급의 사유재산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재생산 구조로써 가능했고 결혼 역시 가계상속을 위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양가 가부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성은 결혼하면 즉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잃게 되고 남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남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된다.

이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여성은 임신 출산과 육아만을 담당하면서 지배층 남성에게 의해 부와 안락을 누릴 수 있었다.

앵겔스가 '자식을 낳는 일을 별도로 한다면 여성은 가내 노예의 지휘자에 불과

한 존재이다'로 단언할 정도로 지배계급의 여성들은 가정속에서 가내 노예의 지휘자로서 먹는 것, 입는 것을 만들면서 가족생활을 관리하긴 했으나 사회적인 권리는 거의 없었고 사회적 지위또한 노예에 버금갈 만큼 낮은 것이었다.

노예제사회에서 여성은 지배계급이던 피지배계급이던 남성의 강한 지배하에 통제를 받았다. 피지배계급 여성의 노동 또한 사회적 생산노동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가사노동에 한정되던가 아니면 사회적 생산노동을 하는 노예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중요한 것도 없을텐데 여성의 사회적 노동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 예속을 당하는 상황은 이러한 노동자체가 중요성을 가질 수 없게 했다.

결국 노예제 하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성노동에 의한 사회적 의미가 있을 수 없었고 사회적 성격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 3). 중세 봉건제 사회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토대는 농노에 의한 토지의 소경영과 독립수공업 경영이다. 즉 장원이라 불리는 영토를 영주가 장악하고 농노들이 이 영토를 빌려 경작하는 소경영형태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따라서 봉건 가정은 자급자족적 경제 단위의 기초 단위가 되었다. 이렇듯 소경영 생산양식이 경제적 기초이면서 사적 소유가 한단계 진전한 봉건제 하의 가족은 남편을 중심으로 부권일체제 가족을 이룬다.

봉건영주의 아내는 자신의 본분이 아내로써 뿐만아니라 남편이 없을 때 관리능력이나 용감성, 가사에 있어서의 노련함을 발휘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봉건영주의 아내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단지 남편이 없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만은 아니었다.

봉건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사는 오늘날 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다. 가족규모가 크고 손님이 잦고 오늘날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집에서 준비 해야 했던 시대에는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도 결코 작은일이 아니었다.

이렇듯 중세의 가정이 현재의 가정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봉건시대에 남자들이 아무리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봉건경제의 담당자였다. 게다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한다는 것과 지위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사회의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 혹은 권력의 기반과의 관계이다. 봉건시대 가정이라는 영역이 아무리 컸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

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정치에서 거의 소외되었다.

이렇듯 지배계급의 여성들은 재산권의 제약, 공적 영역에서의 소외, 교육기회의 제한, 그리고 당시의 정신 생활을 크게 지배했던 종교등의 영향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억압을 받고 불평등한 처지에 놓였다.

한편 피지배계급의 여성들에게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농노가 잉여생산물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내에 노동분업이 재산 소유에 의한 지배, 복종으로까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여성의 노동은 추가적인 노동이었으며 농업노동의 주된 담당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만 치부되고 자신의 역할에 비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도 없었다.

앞에서 우리는 두차례에 걸쳐 '원시사회', '중세·봉건사회'에서 여성의 삶을 알아 봄으로써 여성문제의 기원을 고민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현재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몇가지 측면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까 한다.

그전에 다시 한번 여성문제란 어떤 것인가를 되짚어 보자. 「여성문제」란 직업과 가정, 사랑과 성, 남녀관계와 부모 자식관계등 인간 삶에 있어 근본적인 것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극히 무지하다. 이 무관심은 인간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은 물질이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희생자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생명을 낳고 지킬 의무를 운명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여성문제는 물질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생명'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가치의 일차적인 담당자라는 사실에서 생긴다. 이렇듯 여성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치에 가장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자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겠다.

#### 4)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자본주의는 여성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들은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회적 노동과 정치를 비롯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철폐되고 있다. 축첩과 봉건적인 혼인제도는 폐지되었다. 흔히 "요즘 여자들 살기 좋아졌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억압이 생겨나 오히려 여성들을 더

욱더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가 여성에게 가져온 모든 진보가 합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끌어들이면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철폐하지 않았으며, 일부일처제를 확립하면서 매춘 역시 하나의 사회제도로 만들었다. 가정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서의 확고한 위치 역시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 남녀평등의 대의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래의 관념을 타파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복잡성과 상호모순 되는 현상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여성 억압은 붕괴되고 새로운 남녀관계를 위한 광범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자본주의가 남녀평등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남녀평등의 진전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제한되고 왜곡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은 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한편, 여성의 지위는 궁극적으로 「노동」과 「가족」에서의 위치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이런 과도기적인 성격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과 가족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 #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여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영역과 소비의 영역이 분리되어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는 사적으로 행해진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각 농민가족을 단위로 토지를 경작하여 생산을 했고, 봉건 영주에게 지대를 바치고 난 뒤 나머지 생산물을 각 가정에서 소비했다. 각 가정을 단위로 생산과 소비가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는 각 가정을 단위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에서 생산하는 영역을 남성들의 몫으로, 노동력으로 재생산을 위한 소비는 여성들의 몫으로 고정되어진다. 남성들이 밖에 나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뒷바라지를 사회적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여자 혼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품생산 영역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이 집밖과 집안으로 분명하게 분리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터이다.** 이 두가지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집밖의 사회적 노동과 집안의 사적 노동으로 갈라져 완전히 다른 노동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계속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은 그 본래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일 없는 일로 내팽개쳐졌다. 현재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해 내는 상품 생산노동과 달리 하찮고 시시한 일로 취급됨으로써 여성은 집안일이나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며 살아나가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다음날 다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비용 즉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비, 노동력 재생산비 임금에 있어 여성의 가사노동을 고려하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하고 따라서 자본가의 이윤은 낮아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가사노동을 하찮게 취급하면서도 여성을 계속 집에다 묶어 놓아야 하는 자본가의 논리가 있다. 여성이 집에서 남편과 자식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력 재생산비가 낮아지므로 자본가는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고 따라서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밖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나 안에서 살림만 하는 부인이나 모두 자본가에 의해 착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가족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봉사와 희생으로 여기며 이는 당연히 여성들이 맡아야 한다고 떠드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기 위한 자본가의 거짓선전일 뿐이다. 이러한 노동의 성별 분리와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노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 □ 여학생회 간부로서 우리는?

### 간 부 론

여학생회(부)의 간부로서의 삶을 각오하고 어떻게 하면 여학우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온 날이 벌써 몇 달째.

여학생회가 뭔지도 모르게 시작을 했고 내 자신부터가 여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것인지 막막할때,누구 하나 내 고민 함께 해주지 못한거 같고. 여학생들은 뭐 하자고 하면 자기일이 아닌 양 외면해 버리고 해서 참으로 속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고민들을 다시 한번 추스르며 과연 여학생회(부)의 간부란 도대체 뭘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우리는 꼭 여학생운동을 해나가는 사람이라서기라기 보단, 그전에 한반도 남녘의 여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법적, 제도적 불평등에서부터 여성문제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특히나 여대생이라는 학생의 신분에서 여성문제들을 우리 여학우들과 풀어가기 위한 고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학우들! 남학우와 마찬가지로 지옥의 입시 경쟁에서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하고도 졸업시 취업의 문에서 당하는 서러움.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금방 취직해서 프로로서의 중산층 삶을 살수 있는것 마냥 꿈꾸게 만들고, 팔등신 미인이 최고인 것처럼 거의 몸전체를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미인인양 성의 상품화를 조장해내고 또한 학내는 물론 한반도 남녘 어디서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 여학우들의 현실과 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학생간부일꾼들은 이러한 여학우들의 현실과 처지를 깨닫고 이들의 허위의식 및 여학우문제들을 깨쳐내는 게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간부란 무엇이고 이 속에서 이들의 지위,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시다.

우선, 간부라면 특히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밝혔듯이 여학우들의 현실과 처지를 깨닫고 우리 여학우들도 뭔가 해낼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간부는 학생회의 핵심이며 학우들을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그에 기초해 항상 여학우들과 만나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길 들여지고 왜곡되어진 생각들을 일깨워주며 하나로 묶어내면서 우리 여학우들을 자기 삶과 사회 민족의 주인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부의 지위, 역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학생회(부)간부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를 해봅시다.

여학생회 간부하면 학생회 간부와는 또 다르게 학생회 사업과 여학생회 사업을 같이 고민해야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여학생운동이 그 발전의 첫단계를 걷고 있으며, 정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간부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번이라도 더 우리의 내용을 전달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여학생회(부)간부들의 사업에 있어서 자립자활력을 드높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봤을때 많이 자기모습을 갖춰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또한 생활력에 있어서도 다른 간부들보다 발로 뛰지 못하다는 비판과 정치정세는 물론 우리의 전문영역인 여성문제의 '원론적인' 부분들도 민감하지 못하다는 자아비판을 하곤 합니다.

간부 서로간에도 여성이라는 공통성으로 서로 정을 주고 꽤 친한 듯하지만 비판해야할때 비판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좀더 높은 생각들이 일치하지 못하고 어느 단위에선 서로간에 불신의 벽을 쌓고 그 벽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방관해 버리는 안 좋은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회 간부들이 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지난 윤금이, 김보은 사건때도 보여줬듯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고, 생활에 있어서도 여린 듯하지만 한번 하면 질기게 해내는 강직함 등. 또한 간부들간의 믿음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었다면

과연 어떠한 자세들로 우리는 사업을 펼쳐갈것인가

간부혁신이란 말을 수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껏 간부답지 않은 모습들을 일소하고 진정한 간부의 상을 만들어 가자는 말이겠죠.

그 기본적인 내용은 오직 진정하게 여성의 불평등 문제를 깨쳐갈 사람은 바로 여학우임을 인식하고 여학우들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바로 여학우임을 인식하고 여학우들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자세를 기본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전제조건인 생활력 강화, 즉 생활의 중심을 여학생회에 맞추고 - 과여부는 학생회로겠죠 - 아침 조희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하루 생활을 정례화하고 규율성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력 강화를 전제로한 간부혁신의 내용은 학습, 학생회 활동 그리고 대중사업. 이 세 가지를 골격으로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은 우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학습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여성문제의 기원에 대한 이해
-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의 이해
- 여성애방이론에 대한 이해
-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여학간부의 품성과 자세는 이러해야 하지 않을 까요. 우선 이것이 내일이다라는 자각과 혼자라도 끈덕지게 달라 붙여 끝까지 해 내려는 자세. 즉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간부의 기본 품성인 5품성 즉 성실, 근면, 솔직, 소박, 겸손을 가집시다. 또한 우리 여성들의 특성인 부드러움, 자식들에겐 끈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처럼 우리 여학우들을 끈임없이 사랑하며 살려는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이런 여학간부면 어떨까요.

- @자신의 사업노트에 학우들의 생일과 고민에 뽁뽁이 적혀있는 간부
- @하루에 한면씩의 학우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기뻐하는 간부
- @학우들에게 편지 쓰는 간부
- @이른 아침 학생회실에서 정소하는 간부. 그리고 하루를 계획하는 간부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간부와 학우는 물과 물고기에 비유됩니다. 즉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간부는 학우속에 있지 못하다면 그 생명력을 잃는 다는 것입니다.

여학생회 체계를 보면 기층인 과여부가 있고 허리부분이랄수 있는 단대 여학생 그리고 여학생회 운동의 최고의 뇌수인 총여학생회가 있습니다.